

학술동향

■ 콜롬비아의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

송 병 선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Instituto Caro y Cuervo)는 국내에서 교육기관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는 문학, 문헌학, 언어학의 고급 연구기관으로 더욱 명성이 높다.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는 1942년 8월 25일 콜롬비아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설립 목적은 19세기 위대한 콜롬비아의 문헌학자인 루피노 호세 쿠에르보(Rufino José Cuervo)와 미겔 안토니오 카로(Miguel Antonio Caro)의 작업과 연구를 지속하고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위해 언어학과 문헌학, 문학과 인문학과 콜롬비아 문화사 연구를 촉진하게 널리 알리는데 매진했으며, 수많은 연구모임을 창설하였고 교수와 연구자들의 학회 및 교환을 활성화시켰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후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는 스페인어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다.



카로 이 쿠에르보 로고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는 세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 문학 및 언어학 분야의 석사 과정을 비롯해 교사 및 교수 재교육 과정은 보고타 중심가에 위치한 '쿠에르보의 집'(Casa de Cuervo)에서 이루어지며, 차피네로에 있는 본 청사는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보고타 근교에 위치한 예르바부에나에는 언어학과 문학 분야에서 라틴아메리카 최고라고 일컬어지는 '호세 마누엘 사코니' 도서관, 음성학 실험실, 그리고 이 연구소의 연구결과물과 세계 다른 기관의 연구물을 매년 50권 이상 출판하는 '파트리오타' 출판부, 그리고 언어학, 방언학, 라틴아메리카 문학, 사전학 등의 여러 연구부서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소의 업적은 여러 국제상을 받은 것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99년에는 스페인어 연구와 그 지식의 보급을 인정받아 스페인어권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아스투리아스 왕자상'을 수상했으며, 2001년에는 원주민 언어 및 원주민 문화의 연구와 보존에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페인 정부가 제정한 제 11회 '바르톨로메 데 라스 카사스' 상을 받았다. 2002년에는 60년에 걸친 스페인어권 문화의 연구와 홍보 및 전파의 공로를 인정받아 제 14회 '엘리오 안토니오 데 네브리하' 국제상을 받았다.

여러 국제문화기관들이 이 연구소의 공로를 인정한 것은 대표적인 저작물인 『스페인어 구성과 체계 사전』의 완성과 출판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이 사전은 1872년에 루피노 호세 쿠에르보가 자신의 집에서 시작한 것으로, 쿠에르보는 알파벳 D까지만 완성하고 1911년에 세상을 떠난다. 이후 이 사전은 후학들에 의해 1994년에 총 8권으로 완성된다. 이 사전 이외에도 라틴아메리카 방언학의 초석이자 가장 완벽한 결과물로 평가받는 ALEC(콜롬비아 언어-인종학 지도)을 비롯하여 학술적 가치가 높은 언어학, 방언학, 라틴아메리카문학 서적 등이 출간되었다. 또한 라틴아메리카 문학과 언어학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학술지 《테사우루스》(Thesaurus)를 출간하기도 한다. 2003년까지만 해도 카로 이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

쿠에르보 연구소 출판부는 이런 서적들을 디지털이 아닌 활자 인쇄를 통해 서적을 출판하면서, 과거의 출판전통을 유지했다.

한편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의 교육센터인 ‘세미나리오 안드레스 베요’는 미주기구와의 협약을 통해 1958년에 설립된 대학원 과정으로, 스페인어 언어학과 라틴아메리카 문학을 공부할 수 있는 곳이었다. 여기에서 과거형으로 언급한 것은 콜롬비아 문화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연구와 교육의 효율성을 요구하면서 시장성이 없는 서적의 출간과 전일 무료로 교육하던 대학원 과정에 제동을 걸어 예산을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미나리오 안드레스 베요는 가장 큰 희생자가 되어 2006년부터 문을 닫게 되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최초의 문학 및 언어학 대학원 과정인 세미나리오 안드레스 베요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콜롬비아 전 대통령들을 중심으로 국내외적으로 형성되었고, 2010년부터 약간의 등록금을 받고 다시 대학원 과정을 다시 열 계획이다.

세미나리오 안드레스 베요는 언어학과 라틴아메리카 문학 중심의 1년 전문 과정으로 시작하여 1984년부터 2년 석사과정으로 개편되었다. 첫 1년은 의무과정으로 문학과 언어학 전반에 걸친

과목을 수강하여야 하며, 2년째부터 언어학과 문학을 선택하여 전공할 수 있었다. 이 대학원의 특징은 등록금이 무료이며, 동시에 한 과목이라도 낙제하면 더 이상 과목을 이수할 수 없다는 점이다. 주요과목은 일반언어학, 음성학 및 음운학 실습, 콜롬비아 시, 문학 이론, 의미론, 기호학, 라틴아메리카 소설, 문학사회학 등이 있었고, 대학원 2년차에 전공 선택을 하는 것 이외에는 모든 과목이 필수로 지정되어 있다. 2010년에 개설될 석사과정에서도 이런 커리큘럼은 거의 그대로 지속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2005년 이후 카로 이 쿠에르보는 험난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가장 힘든 기간은 지난 것 같다는 인상을 받는다. 보수적 학술기관이면서도 쿠바 혁명 정부의 부러움을 샀던 라틴아메리카의 대표적 연구기관인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는 이제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를 극복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따라 카로 이 쿠에르보 연구소가 과거의 명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지의 운명이 달려 있다.□